

강연초록...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운동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2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운동,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심포지엄초록이다. 시청자운동의 현황과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편집자 주)

방송의 주인은 방송의 수용자인 일반국민으로 그 근거는 방송이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며 방송의 운영비와 수익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용자인 국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방송은 어떤 특정계층이나 집단으로부터 독립해 객관적 중립의 기조와 주장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대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실정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청자운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첫번째 발제자인 김기태(서강대강사·언론학)씨는 그동안의 시청자운동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 운동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규범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면 오늘의 논의는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방법에 관한 중점을 모으고자 하는 실천전략의 마련 차원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시청자운동 조직화를 현황을 정리, 비판하고 문제점을 추출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TV시청자 운동의 유형을 시청자의식화교육, 모니터운동, 잘못된 방송의 개선과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적 성격의

로 나누고 그중 시청자 운동의 명맥을 이어온 방송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감시운동으로서 비평 또는 모니터 운동의 문제를 7가지 제시했다.

즉, TV모니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시청자 운동의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운동의 성격을 내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니터결과 보고서의 여론

리언 사회·정치 구조적 갈등 요인이 시청자운동을 정치운동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시청자 운동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부분적 또는 한시적으로 제시되는 과정적 목표, 그리고 운동의 확산이나 대중화를 위해 비교적 초기 단계에

그는 개인 차원의 시청자 운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시작하고, 기존의 운동단체가 협의체 성격의 조직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시청자 운동 조직화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시청자만이 좋은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며 실천 강조하면서 말을 맺었다.

한편, 이 심포지움에는 MBC심의실에서 김영호씨가 직접 나와

'사제'는 MBC는 통과, KBS에서는 부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89년 11월22일 6:00이라는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노래는 '정들지 말자'라는 트로트 노래로 '다시 한번만 이별이' 가제에 안아주세요. 뜨겁게 타오르는...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해석한 상황을 노래하는 가요에 대해선 이상하게 판단하고 사태를 풍자하거나 우리의 사회적 아픔을 노래하는 가요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지는 심의의 무분별함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심의보고서', '시청자센터', '시청자위원회'의 설립 운영인 '공개방송협의회의'등의 채널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대체로 각 채널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정보도를 위해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시청자라고 강조하는 그는 현재 의부심의가 내부 심의보다 극악하다고 담담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 심포지움 시작전에는 MBC 대하드라마 '땅'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방영중단 결정에 의해 애초의 50회분중 15회까지만 방영된 채 도중하차 된 것에 대한 MBC 노동조합, 이번 심포지움 참석자 일종의 항의문인 배포된 시청자 운동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게 했다.

기동취재

대학언론탄압분쇄 결의대회

변혁향한 '펜의 몸부림'

서울지역 9개사 편집자원권, 사적, 광고문제 등으로 탄압사에서 투쟁중, 5개사 제작중단사태.

지난 89년 문교부 5·6조치 이후 탄압의 양상이 바뀌면서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교육부와 정보기관의 협조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학교장 또는 중간교수의 간접적 탄압에 의해 대학신문의 편집자원권은 더 짓밟히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서대기련)은 지난2일 광운대에서 '대학언론 탄압분쇄 결의대회'를 갖고 학원탄압, 대학언론탄압에 대해 공동대응할 것과 학생대신문사들이 주관교수의 부당한 편집자원권 침해에 맞서 투쟁하고 있으며 성신여대학보사가 '사적' 문제와 주관교수의 간섭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외국어대학보사, 서강대학교보사는 광고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그의 딸



◇지난 2일 광운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대학언론탄압분쇄 결의대회'는 학교가 예산권한의 문제로 박탈되는 현실이다"라며 "서울지역 2천여 대학언론인은 5월 투쟁의 광장에서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은 학교가 예산권한의 문제로 박탈되는 현실이다"라며 "서울지역 2천여 대학언론인은 5월 투쟁의 광장에서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대학언론은 정권의 탄압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할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이날 대회에서는 현 사회정세를 백안화하고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르게 전달해 내는 일로써에 주력하기 위한 선언일꾼 역량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송보영 기자)

조직화, 방송변화의 핵

특정집단의 매체 독점 견제해야

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모니터 방법이 세련화되지 못한다는 점, TV모니터 운동단체로서 독립된 조직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사회운동 단체의 영향력만에 있어 주체적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들을 들었다.

우선 운동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인 시청자 운동을 주도해 나갈 구체적인 세력의 범위 및 성격을 규명하며, 그동안의 시청자 운동이 주부중심의 여성성격과 기독교 중심의 종교단체 세력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경향은 장점을 한계점을 지니므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시청자 운동이 다수여야 할 영역이 팽방위하고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유형이 다양해 대중성의 문제점을 간파할 수는 없지만, 방송또는 방송을 들

일상적인 차원에서 내세우는 수단이 목표등으로 구분했다. 우선 최종적 목표로 언론부와 사회부문에 나누어 개선 및 개혁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설정, 과정적 목표는 최종적 목표의 성격과 관심영역등의 요인에 따라 목표수립, 순순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가능한 대안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목표달성을 위한 시청자 운동의 전개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화의 과제라고 지적하는 그는 시청자운동은 최소한의 상설조직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동원이 가능한 일시적 대조직의 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과거 시청료 거부운동의 성공사례와 지난해 KBS투쟁 당시 'KBS지키기 시민모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발표를 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방송국의 사전심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일수록 민감하며 그 예로 드라마 '땅' '고개숙인 남자' '사람과 사람'을 들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한국의 노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공연유리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가 발표한 구체적 가요 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송시현의 '가야할 나라는 MBC에서는 부결, KBS에서는 통과'였으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광야에서',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정권출판탄압 법적용, 오히려 탈법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금서'조항 망령적 부활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여론지배와 이데올로기공세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본질적 속성은 감출 수가 없다. 이의 예로서 폭압통치의 대표자로서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두환정권의 3배에 달하는 출판인이 구속되고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던 하직 밑에서 숨지지는 못한다. 89년 문익환·서경원씨 방북사건이후 아전 공안통치의 칼바람이 이제 본질을



현 장 취 재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노동해방 쟁취하자”

지난 30일 군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단병호 전노협위원장장과 백기완 고문등 노동자·학생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계 노동절 1백2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연세대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 이날, 노동절의 현대적 재해석과 투쟁방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집회후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방현기기자)

전 만 환
(본보 편집장)

사회가 진보할수록 정치 및 제도, 풍습 등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치 또는 정치술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통치 집단의 생명유지할 수 있다. 소위 6·29선언이 그러했고, 북방교류의 차원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충격(?)적 대북 교류상황, 동구권 외교 등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저들은 노동자들에게 집권 세력이 선사하는 신선한 메시지로서 전달되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술, 여권내 박철언 장관등 소장파의 세대교체론 등은 기존 정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자기변신의 양상들이다. 급박한 정국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시류에선 자신의 모습을 조삼모사격으로 바꾸는 행위는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제 정치권의 행각은 '도덕성'이라는 가치척도로는 평가할 수 없는 상태이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정권초기의 개량화의 단맛에 동요해 있는 국민들이 아직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지 정치술은 주효했다.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둘러본 소감이 어찌먼 금금하구나. 아내가 대학원으로 늘상 대하고 보던 것들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다름이다. 소제생산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지도 30년, 처음으로 이 분야에 발을 내딛은 50년대 후반만 해도 기껏해야떡방아나 농기구 소제생산이 고작이었어.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공기나 자동차엔진 소제를 만들고있으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셈이지. 이곳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사반세기를 이어왔으니 아버지 삶도 이 소제생산분야 발전과 함께 해 왔단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밤을 새우며 연구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남달라부터 배태당이란 소리를 듣고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 그게 바로 대우의 정신이자, 내 삶의 철학이지.”

이만큼 큰 너를 보니 아버지는 더 기쁘다. 내가 시작한 분야에서 최고가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대단스럽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한 모습도 그렇고... 지난 우리세대 많은 사람들이 바친 꿈과 희생으로 오늘의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부디 나도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멋진 내일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의 꿈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로 이해할 때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은 한결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을 찾은 윤철근.
▶ 대우중공업 신원희과장(소재사업본부 생산1과)과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 신용철군.